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이 지 원



碩士學位論文

제주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연구

Rural area activation research about 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Jeju gasiri town

指導 임영상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6年 1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이 지 원



이 論文을 朴黎明의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16年 1月

審査委員_____ (인)

審査委員_____ (인)

審査委員_____ (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구성	6

제 2장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이론과 사례연구

제 1절 선행연구	8
제 2절 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1
1. 문화교육의 개념	11
2. 문화교육의 필요성	13
제 3절 사례연구	15
1. 칠곡군 인문학 마을	16
1) 현황	16
2) 분석	20
3) 시사점	23
2. 양평군 수미마을	24
1) 현황	24
2) 분석	25
3) 시사점	26

제 3장 가시리 마을의 현황과 문화교육프로그램

제 1절 가시리 마을 역사와 관광자원	28
1. 가시리 마을 역사	28



2. 관광자원	31
제 2절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33
1. 조랑말 체험공원 · 조랑말 박물관	34
2. 가시리 문화센터	46
3.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 가시리 목공방	49
4. 유채꽃 프라자	54
5. 가시리 디자인카페	56
6. 참,곱다(茶) 공방	58
제 4장 가시리 마을 문화교육 분석 및 발전방안	
제 1절 운영주체의 협력체계	61
제 2절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교육	63
제 3절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의 결합	67
제 4절 농촌지역활성화 성과	70
제 5절 개선사항과 발전방안	76
제 5장 결론	78
참 고 문 헌	82
ABSTRACT	86



표 목차

<표 1>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창의파티 In Jeju	39
<표 2>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40
<표 3>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조랑말과 친해지기	42
<표 4>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	43
<표 5>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	44
<표 6>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승마 체험프로그램	45
<표 7>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가시리 문화동아리	47
<표 8>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어린이 영화교실	50
<표 9>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등공예 교실	51
<표 10>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 ..	52
<표 11>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어린이 자연스케치탐험대	52
<표 12>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벽타기 프로젝트	53
<표 13>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자연물공예	55
<표 14> 가시리 디자인 카페 내 문화교육 : 교육을 통한 마을 주민 역량 높이기	57
<표 15> 가시리 디자인 카페 내 문화교육 : 아트북 만들기 교실	58
<표 16> 참, 곱다(茶) 공방 내 문화교육 : 천연염색교실	59
<표 17> 가시리 마을 귀촌자 내역	72
<표 18> 문화교육 부문 주민 참여현황	73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2> 조랑말 체험공원 입구의 말 조형물 1	34
<그림 3> 조랑말 체험공원 입구의 말 조형물 2	34
<그림 4> 조랑말 체험공원 내 마(馬)음 카페	35
<그림 5> 가시리 마을 지도	35
<그림 6> 조랑말 박물관 입구	35
<그림 7> 조랑말 박물관 전경	35
<그림 8> 조랑말 박물관 내 테우리 유물 1	36
<그림 9> 조랑말 박물관 내 테우리 유물 2	36
<그림 10> 따라비 승마장 전경	37
<그림 11> 조랑말 박물관의 옥상정원 전경	37
<그림 12> 마(馬)음 카페	37
<그림 13> 마(馬)음 카페 메뉴판	37
<그림 14> 가시리 문화센터	46
<그림 15>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49
<그림 16> 가시리 마을 운영주체 협력체계	61
<그림 17> 가시리 마을의 인구증가	70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의 산업화는 농촌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사가 가능한 비옥하고 넓은 땅을 지니어 주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는 지나갔다. 때문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대다수인 농촌에서는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하여 더 발전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 젊은 인구가 농촌을 떠남에 따라 지역의 노령화가 진행되었고 지역의 노령화로 생산 활동이 지체되었다. 농촌은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농촌활성화는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이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최근 농촌지역활성화는 여러 방안으로 실시되어 다양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경우, 필요한 하드웨어의 건축과 외부 전문가들의 초빙,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짧은 시간에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의 활성화 관련 모든 부분을 정부가 끝까지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연차 사업이 종료되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활성화를 담당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큰 혼란이 온다. 지역의 활성화가 지역민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활성화 사업의

1) 방한영,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p. 9.



필요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또한 지역민들이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향후 책임을 떠안게 된다. 결국 정부 사업이 끝나면 지역활성화는 짧은 기간 내에 없었던 일이 된다.

반대로 지역민들이 그들만의 의지와 힘으로 활성화를 이루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하드웨어의 건축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힘들어 원활한 지역활성화의 단계가 진행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없이 개발되는 지역활성화 프로그램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이 모든 방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활성화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면서 외부 전문가가 결합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와 지역 주민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하는 방식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굴,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은 상호작용을 했을 때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문화가 가진 특수성은 그 자체로 경쟁력을 지닌다.²⁾ 농촌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만큼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아 지역의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촌 중에서는 지역소득의 증가를 목표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부분에만 급급해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다. 이 경우 방문객들이 각각 프로그램들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

2) 김기수, 「글로벌리제이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맥주 라벨의 정체성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2009, p. 68.



어 재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결과로 휴일 등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프로그램만이 유지된다.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지역보다 해당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용이 쉽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제주 가시리 마을의 지역활성화 사업은 주목된다.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문화를 재발굴하고 문화교육 등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면서 운영주체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외부 전문가와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었다.

제주 가시리 마을은 중산간³⁾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상의 특성 때문에 조선시대 국영목장인 '갑마장'⁴⁾이 위치하여 목축업이 성행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목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쇠락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시골 농촌 마을 이었던 가시리 마을은 마을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맞이하였다. 갑마장이 위치했었던 마을의 역사적 특성을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말을 목축하고 있던 공동목장의 일부에 말과 관련된 박물관, 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 등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지역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였다. 그리고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은 단순한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 마을의 문화가치를 알리는 교육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가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교육 프

3) 제주도 중산간 지란 한라산(두모악)을 중심으로 해발100m~300m 사이의 평야 지대를 일컫는다.

4) 조선 시대에는 최고 등급의 말을 갑마(甲馬)라고 불렀다. 이렇듯 최고 등급의 말들만 모아서 기르던 곳을 갑마장이라고 한다.



로그래를 개발하여 농촌지역활성화를 이룬 제주 가시리 마을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 가시리 마을에서 운영주체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마을이 갖고 있는 농촌지역활성화의 성공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현지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총 5번으로 방문, 체험, 면담의 단계별로 이루어졌으며 문헌조사는 관련 논문과 연구, 보도 자료, 마을 대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현장조사에서는 2014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가시리 마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 중 조랑말 체험공원을 방문하여 조랑말 박물관과 따라비 승마장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체험한 뒤 1차 면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최초의 리립(里立) 박물관인 조랑말 박물관은 제주 말에 대한 일괄적인 특징들과 역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박물관 소속의 학예사는 제주 말과 그렇지 않은 여러 말의 종류에 대하여 색깔, 생김새, 성격 등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제주도에서 말을 중심으로 하는 목축업의 역사를 시대별로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를 가시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역사 언급과도 연결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제주도에 대한 이해와 가시리 마을에 대한 특이성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비 승마장은 ‘조랑말과 친해지기’라는 프로그램



램을 진행하는데 이는 제주 말에 대한 이해를 직접 체험을 통하여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랑말을 바라보면서 조랑말이 아닌 말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말 관리법을 배우면서 교감을 한 뒤 승마를 한다. 승마가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으로써 말을 타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1차 면담은 운영주체의 협력체계에서 마을 컨설팅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두 번째 현장조사는 2015년 4월 15일부터 16일에 진행되었으며 가시리 마을의 지형과 구조, 하드웨어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시리 마을의 전체 지도를 보며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지형의 특이성과 관련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또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된 하드웨어들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말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세 번째 현장조사는 2015년 5월 9일부터 13일, 많은 방문객의 이목을 끌고 있는 조랑말 체험공원의 재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조랑말 체험공원 내의 마(馬)음 카페와 따라비 승마장을 방문하였다. 마(馬)음 카페의 운영을 살펴보고 다른 카페와의 차별화 전략을 파악하고 승마장의 승마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 다른 승마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현장조사는 2015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가시리 마을 내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들의 파악과 2차 면담을 목표로 하였다. 2차 면담은 심층 면담으로 컨설팅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섯 번째 현장조사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3차 면담을 목적으로 하였다. 운영주체의 협력체계 중 마을회 소속 관계자와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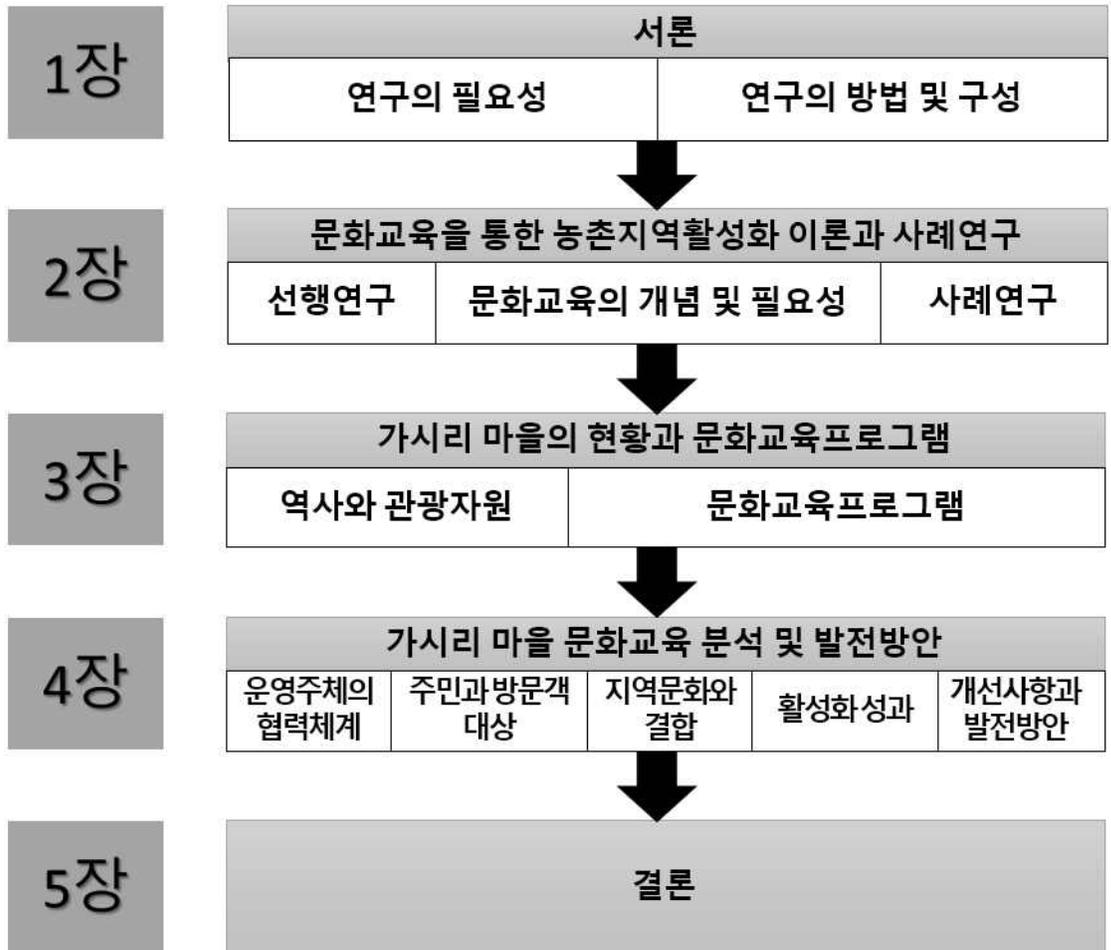
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관련 진행 방식과 성과에 대한 심층 면담, 컨설팅을 담당
한 외부 전문가와의 방문객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관련 심층 면
담들이 이루어졌다.

다섯 번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마을 대표 홈페이지와 통계청 등
의 인터넷 조사로 보완을 거쳤다. 현장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진 문헌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 부분과 가시리 마을처럼 문화교육을 이용하여 지역활성화
를 이룬 사례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2. 연구의 구성

연구는 총 5장으로 나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이야기 하였다. 2장에서는 농
촌지역활성화와 문화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한 후 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다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의 사례를 칠곡군
인문학 마을과 양평군 수미 마을 두 곳을 들어 현황 및 분석과 두 마을이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가시리 마을이 형성된 역사를 알아보고 지나온
세월과 갖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관광자원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문화체험공간 별로 분류한 후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은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의 분석을 하고 발
전방안을 알아보았다. 분석은 운영주체의 협력체계와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의 결
합,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교육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5장에서는 연
구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제 2장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이론과 사례연구

제 1절 선행연구

‘지역활성화’와 ‘문화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만들기 등 농촌지역활성화 관련 선행연구와 문화교육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농촌의 활성화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는 방한영(2003), 배기택(2012), 김영택(2010), 이동주(2006)의 연구가 있다. 문화교육을 통한 지역활성화 연구는 한보원(2011), 배선주(2012), 송영호(2006), 백진주(2011), 홍정희(1996), 이효선(2012), 이유원(2015)의 연구가 있다.

먼저 농촌활성화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한영(2003)은 농촌마을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활성화 사업의 실태 조사를 한 후 지역유산의 활용,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조력을 중요 개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배기택(2012)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마을만들기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가능성과 활성화 과제를 도출한 뒤 활성화 방안에서 주체별 역할을 제시, 마을의 발전 여건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김영택(2010)은 가평군 운악산 포도향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농촌의 활성화 계획을 위한 향토자원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농촌마을 계획을 위한 종합 분석을 시행하여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동주(2006)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주민주도로 마을 정비가 된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반시설 정비와 이를 통한 마을 활성화 방안 제안 교육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다음으로 문화교육을 통한 지역활성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보원(2011)은 남양주시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 유도 고찰 과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배선주(2012)는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의 3가지 주최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의 형태 분석을 통해 기획 및 운영자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고 실질적인 개선방향 및 활성화 방안 제시를 하였다. 송영호(2006)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도입,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분석을 하여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백진주(2011)는 수원화성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문화와 연계한 박물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정희(1996)는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과 연결되는 것에 집중하여 지역민들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효선(2012)은 마을만들기 교육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의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지역만들기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주체별 추진체계의 수립 및 역할 정립을 하였다. 이유원(2015)은 국내의 양평군립미술관과 국외의 일본 21세기 미술관을 비교 분석하여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문화에 미치는 역할



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농촌지역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인 뒷받침, 분야별 전문가의 조력으로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발전 여건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민의 견을 수렴한 향토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활성화의 방안으로 교육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먼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보전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박물관 외에도 지역의 미술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문화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가시리 마을은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 행정이 협력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룬 지역이다. 따라서 가시리 마을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춘 마을에 대한 연구라는 면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절 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 문화교육의 개념

문화교육이란 쉽게 이야기하여 ‘문화’를 ‘교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다.⁵⁾ 때문에 발전과 존속의 의미가 있는 모든 것에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의미 정의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1차적으로 문화에 대해 지역활성화에 맞는 개념을 언급하고 2차적으로 ‘문화’ + ‘교육’의 합성어로 설명할 것이다.

김태순⁶⁾은 문화는 생활 및 습관 등의 무형적 가치와 물리적 형태를 띠는 유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며 인간의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중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유미⁷⁾는 문화는 지역의 역사 정치 지리 정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오랜 역사를 거쳐 의미가 형성된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 자체를 모두 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임학순⁸⁾은 지역사회 관점에서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것으로 지역특성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는 그것이 갖고 있는 담론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론

-
-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430&cid=46615&categoryId=46615>, 2015. 10. 20 검색
 - 6) 김태순, 「자치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8.
 - 7) 김유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8.
 - 8)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외화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p.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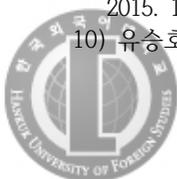


적인 개념으로써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⁹⁾ 때문에 문화란 큰 의미로써 자연의 반대말을 뜻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해 최초로 정의를 한 사람인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¹⁰⁾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광의의 민족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심 및 사회의 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의미에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인 ‘교육’을 포함한다면 ‘문화’ + ‘교육’의 결합으로 ‘문화교육’을 설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정리한 ‘문화교육’이란, 여러 연구의 맥락에 따라 많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중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획득한 습관의 총체이자 지역사회에서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문화’를 가르치고 배워 ‘발전·존속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때문에 정해진 공간에서 ‘문화’를 이미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려 하거나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또한 그 장소에 함께 존재 한다면 ‘문화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문화교육’은 ‘문화교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 관련 주제를 포함한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430&cid=46615&categoryId=46615>, 2015. 10. 20 검색

10)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신사, 2008, p. 13.



2. 문화교육의 필요성

문화교육의 필요성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의 특수성을 띄어 정체성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지역문화의 존속이며 두 번째는 그러한 지역문화의 발전이다.

첫 번째로 문화교육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지역문화의 존속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의식주는 각각의 특별한 문화를 생성하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거듭하여 쌓인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들은 기존의 생활습관들을 변화에 맞추어 바꿀 시간을 갖지 못한다. 결국 먼저 가지고 있던 문화들의 가치나 의미들은 지역민들조차 어찌되는지 의식되지 못한 채 급급히 시대에 맞추어 버려진다. 한번 잊어버린 문화는 되찾기 어렵다. 문화는 탑처럼 과거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진 부분을 다시 채워 넣을 순 없다. 지역만이 갖고 있던 고유의 것들은 생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며 한번 사라진다면 되찾을 수 없다.

때문에 지역은 지역문화를 존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존속 방안은 먼저, 문화는 자연환경에 따른 사람들의 의식주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왔던 의식주를 지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시대가 바뀌면서 온전히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자연환경이 변화를 맞는다면 불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교육이 또 다른 방안이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후대에 전달한다.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은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비하여 비교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전 시대들에서는 단순한 문화의 존속을 위한 교육은 크게 중요시 되지 않았다. 지역 곳곳의 왕실에서, 집안에서, 집단들에서 문화의 교



육은 옛 것을 알게 하고 앞으로의 더 나은 개발을 위함이 더 컸다. 그러나 빠르게 모든 것들이 바뀌는 현대에는 문화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존속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교육은 지역문화의 발전을 가능케 한다. 문화발전이란 변화 속에서 파악되고 다른 형태의 발전과 관련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문화생활의 측면을 말한다.¹¹⁾ 문화발전은 계속되어지는 사람들의 생활 속, 겹겹이 쌓여 올라가는 문화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로 실현된다. 예를 들자면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흔한 제주도민들은 예부터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집을 지을 때 돌로 담을 쌓고 지붕을 새끼줄로 고정을 시켰다. 음식 또한 쌀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 밭농사를 지어 고구마, 콩, 보리 등의 음식들을 먹었으며 바다에서 해물을 채취하였다. 제주도 음식 중에는 생선회, 생선국, 잡곡밥 등이 종류가 많다. 이러한 식(食), 주(住)의 문화의 측면만 보아도 문화의 발전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이 없이 존속만 지속되는 문화는 사장되기 쉽다. 또한 지역문화의 발전은 지역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지역문화의 활력을 재생, 강화함으로써 그 문화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지역 공동체와 그 문화에 대해 일체감을 갖고 귀속 의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¹²⁾

이러한 문화발전은 세대를 거듭하며 일어난다. 때문에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필수적이다. 전(前) 세대는 항상 생활 속에서 앞 세대에게 직접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 계속되는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깨닫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나 특수한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한다. 기록으로 남겨진 문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읽혀지고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1) 홍정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22.

12) 홍정희, 위의 논문, p. 23.



제 3절 사례연구

문화교육이란 인간이 획득한 습관의 총체이자 지역사회에서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문화’를 가르치고 배워 ‘발전·존속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란 해당 지역이 활성화 전보다 생기를 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대상이 되는 가시리 마을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촌이므로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로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농촌지역 대부분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 활동량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소득 정체·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어 고령화가 촉진되고 농가부채의 증대로 원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¹³⁾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의 사례’를 ‘문화교육’을 시행했을 때 지역의 ‘인구증가’, ‘소득증가’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며 지역활성화의 평가 기준을 ‘인식변화’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추가하여 언급할 것이다.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종 박물관, 미술관, 주민회관 등의 기관과 지자체, 정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은 두드러지는 부분들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의 대상에 따라 목적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에서 지역문화와의 결합은 교육의 특이성 부분을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와의 결합

13) 방한영,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 9.



의 여부별로도 나눌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진행이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운영주체별로도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대상별, 지역문화와의 결합 여부별, 운영주체별로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의 사례들은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사례로 ‘칠곡군 인문학 마을’과 ‘양평군 수미마을’을 들어 살펴볼 것이다.

1. 칠곡군 인문학 마을

1) 현황

경북 칠곡군은 대구광역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낙동강과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충적평야를 보유하고 있어 일찍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고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의 중심부라 불리었다. 오랫동안 농사가 생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졌던 대구광역시 등에 비하여 늦었다. 현재는 대도시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생업으로 삼은 가구는 전체의 약20%에 그친다. 대구광역시와 구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어 섬유공장과 전자부품공장이 지역에 들어와 있다. 2015년 10월말 인구 현황에 따르면 군 전체 총 약 53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¹⁴⁾

칠곡군의 인문학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인문학 프로젝트’라고 일컫는다. 2015년에는 ‘인문학 프로젝트’ 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인문학아카데미, 인문

14) 칠곡군청 홈페이지, www.chilgok.go.kr, 2015.11.20. 검색



학 여행, 인문학공모사업, 전국대학생인문학활동, 주민 맞춤형 인문학강좌,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 인문학 마을 축제, 인문학 독서 골든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 세부 사업은 인문학이 마을 자원과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2년부터 칠곡군 내 200여개가 되는 리단위 마을 중 매년마다 인문학 마을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 및 지원은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으나 기획 및 진행은 주민들이 주체가 된 주민주도형 사업을 지향한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주민들이 함께하여 교육을 받고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이 중심이었다. 처음 사업 시작 시, 대상마을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 리더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2013 칠곡 마을 인문학 특성화 사업’을 출발하였다. 사업의 출발에 앞서 10개의 마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3차례의 마을 주민 워크숍으로 주민 사업단을 만들고 합의 등을 거쳤다. 인문학 마을 사업 설계 워크숍, 인문학 마을의 삶의 기술 교육 워크숍, 인문학 마을 사업의 중간을 묶고 푸는 점검 워크숍을 통하여 마을별 사업 통합운영을 하였다. 또한 마을별 주민 기자 양성 교육을 하여 마을 신문을 출간, 마을별 사업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인문학 마을 공동체 리더 양성 교육으로 1기 마을 리더들이 2기 마을 대상 참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칠곡의 인문학 마을에서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4 칠곡 마을 인문학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5개의 마을이 추가되었으며 사업은 인문학 마을 사업 설계 워크숍, 마을 사업 계획 조정과 확정 워크숍, 마을 사업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순서로 진행되었다. 칠곡군의 인문학 사업은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과 함



깨하고 주민들을 성장시키면서 진행되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 사업은 칠곡군의 8개의 읍면 중 6개가 참여하였으며 14개의 마을에서 인문학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북삼읍 송오2리에서 단감을 주 작물로 재배하는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막걸리를 담고 땡감으로 천연염색을 배워 스카프, 앞치마를 만드는 ‘달디단 옛이야기와 별과 단감잔치’,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마을 구성원의 시선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마을신문 제작, 전통 수의만들기, 난타와 한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인문학을 통한 힐링’, 어로1리 노인회의 노인들이 한글을 깨치고 연극 무대에 올라 배우가 된 ‘보람할매연극단’, 약목면 남계3리의 90년이 된 초롱계(契)를 활용하여 ‘적정기술’¹⁵⁾을 공유하는 ‘공평화락 초롱계 마을’, 석적읍 부영아파트의 아기와 엄마가 함께하는 요가·미술·체육 교실과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마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다정다감 공동체 꾸리기’, 가산면 학상리의 주민들이 함께 서각작품을 만드는 서각교실, 바느질을 하는 규방공예 교실, 성인 문해 교실, 마을의 자원과 유례를 찾아 마을 지도 만들기 및 손글씨로 문패달기의 ‘학상리 인문 보물 탐사대’, 학상1리의 ‘할머니들이 만드는 구석구석 이야기 산책로’, 지천면 영오1리의 ‘석감주 익는 마을’, 왜관읍 금남2리의 아버지들이 요리를 배우는 주민요리교실, 주민들의 공동체 예술문화 활동으로 마을과 농장의 안내판을 만드는 서각배움교실, 사진·댄스·문해 교실의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매원 2리의 ‘아름다운 이야기 꽃밭 등 10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기존 10개의 마을 중 2013년의 사업을 이어 발전시킨 북삼읍 송오2리 ‘마을, 단맛에 물들다’,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소통을 그리는 마을, 사람을

15) 나무를 적게 쓰기도 충분한 열을 내고 햇볕과 바람과 빗물과 흙을 살림에 사용하는 생활과학이다.



담다’, 어로1리의 ‘감성을 담고 쭉고 놓고 나누다’, 약목면 남계3리의 ‘초롱계 다시 불 밝히다’, 석적읍 부영아파트의 ‘다정다감 공동체’, 가산면 학상리의 ‘마을, 살림을 시작하다’, 왜관읍 금남2리의 ‘맛도 들고 멋도 들다’ 등의 7개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천면 영오1리의 마을 지형과 에너지 적정기술을 이용한 햇빛 마을 사업 ‘마을, 자연 에너지로 살림하다’, 매원 2리의 동제사, 풍물놀이, 모내기 소리, 전통 싸리 공예, 벚짚 공예 등 잊혀진 기술들을 살리는 ‘미래 마을에 전통을 전수하다’ 등의 2개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2014년에 새로 인문학 마을 사업을 시작한 북삼읍 송오3리의 모든 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술 공유학교와 마을회관이 영화관이 되는 달밤 파전 영화제의 ‘주민, 예술가 되다’, 송오화성파크아파트의 마을 주민이 모두 한 가족이 되는 ‘마을, 공유 생활 시작하다’, 왜관읍 대동다숲아파트의 어르신들이 요리를 주민에게 가르쳐주는 ‘어르신, 요리를 통해 삶을 전수하는 학교 열다’, 석적읍 한솔솔파크아파트의 주민들이 만들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문학 공간 ‘아마존’의 ‘두근두근 아마존’, 지천면 달서리의 마을 공동체에서 요리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본인들의 농촌 기술을 나누는 ‘서로를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삼색 마을’ 사업이 있다.¹⁶⁾

칠곡군의 문화교육은 2000년 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문화회관은 본관·사회교육관·평생학습인문학관 등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세워졌다. 칠곡군은 직접 강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양강좌를 먼저 시작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칠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2003년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강의를 원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비율의 농업인구를 고려하여 농업경영전공 과정을 개설

16) 칠곡군 14마을 주민, 「삶의 학교 칠곡 인문학 마을」, 2014, 빛을 만지는 아이들, p. 9~25.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칠곡군의 문화교육은 군청에서 교육문화회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대학에서 고졸학력 이상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진행하는 것과 주민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인문학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시사한다. 인문학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내 추진사업들이 주민 자치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마을별 주민들이 직접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2013년, 2014년 마을 사업들은 모든 사업이 배우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안에서 주민들은 본인의 기술을 공유한다. 술을 담그고 음식을 만드는 비교적 쉽고 단순한 것에서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주민이 다른 주민에게 가르쳐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서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서 칠곡군의 인문학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마을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문화와 마을에서 노인들만 알고 묻어져 가던 문화들이 전승되어 존속·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2) 분석

칠곡군의 문화교육을 대상별, 운영주체별, 지역문화와 결합 여부별로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칠곡군은 정부가 운영주체로써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칠곡군은 주민들의 문화교육만을 위한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내에 부서들을 배치하였다. 부서들은 칠곡군 내 교육 관련 사업들을 담당한다. 사업부서는 평생교육, 청소년육성교육,



사회교육, 여성개발교육으로 나뉜다. 평생교육부서에서는 지역거점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인문학 프로젝트관련 교육, 평생학습-일자리 창출프로그램, 칠곡평생학습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부서는 지역학교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교육,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컨텐츠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교육, 논술과 동아리 활성화 등의 청소년 창의적 학습관련 교육환경 서비스를 강화하는 교육, 청소년 기자단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는 청소년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 사회교육 부서는 장수대학,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며 여성개발부서는 여성의 취업·창업·취미·문화 교육과 칠곡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배움터 교육을 맡고 있다. 그 중 칠곡군의 평생학습대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¹⁷⁾ 진행방식은 대구대와 대구사이버대와 결합하여 학점을 위탁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전문학사와 학사의 학위를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어 주민들의 학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와 결합 여부별로 살펴본다면 칠곡군의 문화교육 중 인문학 프로젝트 부문을 들 수 있다. 칠곡군의 인문학 프로젝트는 중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는 ‘2013 칠곡 마을 인문학 특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주민 사업단을 만들어 진행된 사업이다. 총 14개의 칠곡군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 왜관읍 금남 2리의 주민 요리교실, 대동다숲아파트의 인생과 요리교실과 지천면 달서리의 삼색 요리교실, 부감을 송오화성파크아파트의 마을 공유 부엌은 모두 각 마을 내의 주부들이 모여 각자의 음식 솜씨를 나누는 장이다. 김장하는 방법이나 밑반찬을 만드는 방법, 지역의

17)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public.chilgok.go.kr/main/>, 2015.11.20. 검색.



농산품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이 음식을 해오던 방법들을 가르치고 배운다. 약목면 남계3리의 적정 기술 살림 학교, 인문 기술 공방, 왜관읍 매원2리의 주민 인문교실: 기술 공유, 북삼읍 송오3리의 현자들의 생활 기술 공유 학교, 지천면 영로1리의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활동은 마을의 중장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농업 관련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다. 농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나누고 발전시켜 마을 전체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거나 남성들이 힘을 모아 마을 내에 수리가 필요한 곳들을 고치기도 한다. 왜관읍 매원2리의 화전놀이 재현과 북삼읍 송오2리의 단감 체험축제는 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을 활용하여 옛부터 지내오던 민속을 살린다. 화전놀이에서는 삼월 삼짇날 마을 여자들이 진달래 꽃잎을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고 가무를 즐기는 것을 살렸으며 단감 체험 축제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전에 농사를 할때에 배웠던 농악가락을 살려 연주하고 지신밟기를 한다. 농업이 주 생업인 칠곡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여러 먹거리들이 있었고 지역만의 농업 기술이 발달했었다. 현대에 들어 농촌에서 이웃 간의 왕래가 전보다 줄어들며 마을 주민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교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통하여 존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칠곡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그 자체가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교육이다.



3) 시사점

칠곡군 인문학 마을은 정부 주도 하에 주민을 대상으로 ‘칠곡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문화와 결합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문화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련 중심 기관을 갖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주된 목표로 평생교육, 사회교육, 청소년 교육, 여성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격증과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점은행제 등과 같이 교육 모든 부분에서 인문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칠곡군 자체가 ‘인문학’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인문학 도시’라 일컫고 있는 만큼 인문학 프로젝트가 교육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칠곡군은 ‘칠곡 인문학 마을 만들기’에서 물질적인 가치가 주목받는 현대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목적인 학문인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결합해 주민들의 소통을 높이는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지역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 주었다.

문화교육이 지역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다.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를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문화교육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방문객이 지역의 특산품 등을 구입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부분을 가져 올 수 있다.

칠곡군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소득 증대와 마을의 문화를 외부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민들 내부에서 정부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교육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화교육을 고민하고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양평군 수미마을

1) 현황

수미마을은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이다. 단월면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농촌마을이다. 예부터 물이 좋아서 쌀농사가 유명했다.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처음 지정되면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최우수 등급을 맞았다. 수미마을은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사업 형태는 지역 주민이 계획하고 협력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광두레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농심의 '수미칩'과 공동마케팅을 진행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감자 전량을 농심에서 구매를 하고 마을에서는 수미칩과 관련된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있다. 농촌마을 중에서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역활성화에 성공을 거둔 마을로 평가받고 있으며 365일 축제가 열리는 '양평의 르네상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마다 테마가 있는 축제 개최와 축제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은 관람객을 끊임없이 방문하게 하며 만족도가 높아 많은 신문과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다.

수미마을 내 문화교육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양평의 르네상스, 수미마을의 365일 축제'를 중심으로 나눈다면 봄에 개최되는 딸기 축제의 딸기 체험프로그램, 여름의 물놀이축제의 체험프로그램, 가을 수확 축제에서 밤과 고구마 체험프로그램, 겨울 김장, 빙어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봄의 딸기 축제 체험프로그램의 구성은 딸기체험,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 딸기 찐빵 만들기, 트랙터마차 타고 갈대숲 탐방하기, 부침개 만들어먹기 순서로 진행된다. 여름의 물놀이 축제는 세부적인 축제 이름은 메기수염축제로 맨손으로 메기 사냥, 뗏목타고 수중생태체험, 물싸움놀이, 수중양용마차타고 갈대숲 탐방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수미레프팅, 감자 전 먹기, 비 내리는 걸기 좋은 산책코스 탐방으로 다른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가을 수확축제의 세부 이름인 몽땅구이 축제의 프로그램은 주어진 시간 동안 메기와 장어 사냥, 잡은 물고기 구워 먹기, 수미 워터 바이크 체험으로 이뤄진다.¹⁸⁾ 겨울의 김장 축제에서는 수미마을 김장 배추와 무 소개, 김장 속 만들기, 보쌈 들기기, 수미마을 절임배추로 김장 담그기, 트랙터 마차 타기, 인절미 떡메치기로 진행된다.¹⁹⁾ 겨울 빙어 축제에서는 빙어 잡기, 빙어튀김 및 무침 시식하기, 호밀밭에서 연날리기, 썰매 대회 참가하기, 알밤 구워먹기, 수미찐빵 만들어먹기, 달고나 만들어 먹기로 진행된다.²⁰⁾ 축제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ATV, 수미레프팅, 수확체험, 찐빵 만들기 등이 있다.²¹⁾

2) 분석

양평군 수미마을의 문화교육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 ‘수미마을 365일 축제

18) 양평몽땅구이축제 홈페이지, <http://autumnfestival.kr/reserve/view.php?no=700>, 2015. 11. 20 검색

19) 김장축제 홈페이지, <http://gimjangtour.kr/reserve/view.php?no=530>, 2015. 11. 20 검색

20) 겨울 빙어축제 홈페이지, <http://secretfestival.kr/reserve/view.php?no=99>, 2015. 11. 20 검색

21) 메기수염축제 홈페이지, <http://summerfestival.kr/intro2/sub01.php>, 2015. 11. 20 검색



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테마에 맞추어 체험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는 수미마을의 문화교육은 딸기 수확체험, 물놀이, 고구마·밤 수확체험, 김장 및 빙어 잡이 체험 등 마을의 지역 위치적 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과 인접한 문화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관광객들은 수미마을의 계절별 특징을 기억하고 알아내기 쉬워 다른 곳에서도 관련된 테마를 마주쳤을 때, 체험했던 당시의 기억을 생각해 내기 좋다. 이는 재방문율을 높여주는 방안 중 하나가 된다. 주제별 프로그램의 목적이 명확하여 단순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진행되는 내내 빈틈없는 세부 일정으로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관광객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수익성 창출이 큰 목적이다. 때문에 마을의 역사나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시사점

양평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년 시기별 다른 프로그램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징을 기억하고 알기 쉽다. 단순한 테마별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닌 주변 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높다. 수익을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미마을은 체험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만족감을 얻어냈으며 그 결과 방송과 신문을 통해 큰 홍보효과를 보았고 이는 지역활성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수미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수익성 창출에 집중



하였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왜 수미마을이 4계절 별로 다른 축제를 열 수 있는지, 딸기 농사는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강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가을 수확을 위해서는 예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빙어 잡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 프로그램의 진행 이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활용하여 지역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파악이 지역주민들에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깊이가 없는 문화 체험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체험이 있을 때에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 수미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깊은 이해를 위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에 의미를 실어 다른 지역의 비슷한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3장 가시리 마을의 현황과 문화교육프로그램

제 1절 가시리 마을 역사와 관광자원

1. 가시리 마을 역사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남북 길이는 31km, 동서의 길이는 73km나 되며 표선면 전체 면적의 41.4%를 차지한다. 옛 이름은 ‘가시오름마을’ 또는 ‘가스름’으로, ‘가시오름마을’은 현재 가시리 남쪽 세화1리(細花1里)와 토산1리(兎山1里) 가까이에 있는 ‘가시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한자로는 ‘가시악리(加時嶽里)’ 또는 ‘가시악촌(加時嶽村)’으로 표기하다가, ‘악(嶽)’을 생략하여 ‘가시리(加時里)’로 표기하였으나 마을 동쪽에 있는 ‘갑선이오름’을 ‘가시오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가시오름마을은 약 600년 전 고려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청주한씨(淸州韓氏) 입도조(入道祖) 한천(韓蕝)의 제주도 정착과 맥을 같이 한다. 한천은 제주에 유배되었었으며 유배에서 풀려난 뒤 ‘동박낭밭집터’에 정착하였다. 이보다 100여 년 앞서서는 현재 병곳오름으로 불리는 ‘안좌오름’ 일대에 변씨가 들어와 정착하여 ‘안좌오름마을’이 생겨났고, 이후 450년 전에 군위 오씨, 뒤이어 순흥 안씨와 신천 강씨 등이 입주하면서 마을 규모가 확대되었다 한다. 이후 1915년 도제(島制)(주석) 실시로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가시리가 되었고, 1935년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바뀌면서 표선면 가시리가 되었다. 1946년 8월 1일에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로 새롭게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시리 마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본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역기동, 생기동의 마을들이 있다. 가시리는 지형적으로 중산간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넓은 대지를 이용해 가축을 기르는데 적합한 장소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농사와 목축에 집중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4·3 사건 당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학살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 가시리의 구석구석은 마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현재 가시리라는 지명을 만들어낸 가시오름마을은 본동의 역사와 시작을 함께 한다. 가시오름마을을 처음 세운 청주한씨 한천은 고려 말 이성계의 제거를 모의 중 탄로나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가족을 모두 이끌고 62세의 한천이 가시리에 정착하였을 때 대제학을 지낸 학자가 유배를 왔다는 소문을 듣고 유생들이 찾아들었다. 가시오름 주변 일대였기 때문에 가시오름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면암 최익현은 이후 1879년 제주도로 유배를 와 있다가 유배가 풀려 유람을 하던 중 가시리의 한천 유허지를 돌아본다. 최익현은 유배를 와 있던 상황에서도 학문을 일으켰던 한천에게 감복하여 비문을 남긴다. 본동에는 이러한 가시리 마을의 중심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가시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안좌동은 고려 변자의 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구전으로 변자의가 큰 기와집을 짓고 살면서 제주어로 정원을 말하는 ‘우연’과 기와지붕을 이야기하는 ‘와개’를 합쳐 지금까지 ‘와개우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안좌동은 약 10여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가시리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안좌폭포



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천이 반달 모양으로 흐르며 옛날 밥을 짓는 냄비와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징의 역할을 함께 하는 ‘조두’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두리동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두리동은 4·3 사건에서 폐허가 되었다. 1945년 경 가시리 내에서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였던 두리동은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가 화를 당하면서 사실상 폐쇄되었었다. 10여년 후 본동으로 대피하여 있던 주민 몇이 돌아오면서 재건을 시작하였다. 두리동은 팽나무가 무성하여 폭남골이라 불렀던 폭남동, 풍수지리학 적으로 용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머리왓’이라 불리기도 하고 지형이 활을 닮았다 하여 ‘강궁이마루’라고도 불리는 역지동과 함께 가시리 안에서 제주 4·3 사건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곳이다.

생기동은 두리동, 폭남동, 역지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생기동은 4·3 사건으로 인하여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힘들게 된 주민들을 위해 1960년 대 들어 정부에서 주택 복구 용자 지원의 일환으로 생겼다. ‘정언이목장’ 자리에 개량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기운차게 일어나라는 뜻으로,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생기동이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생업이 대부분 농업이다. 전체 가구의 84.4%가 농업에 집중, 마을 내 대부분의 농가가 전업농을 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감귤로 전체 재배면적의 38%에 달한다. 외에 더덕, 당근,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 축산업은 돼지와 소에 집중되어 있고 마을의 돼지는 고기 맛이 유명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²²⁾

22)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 『제주 가시리 문화지도』, 2010, 모모프린코, p. 15~31.



2. 관광자원

가시리 마을은 2014년 기준 총 48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8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는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지역적으로 6개의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13개의 오름을 보유하고 있다. 13개의 오름들과 자연 환경이 만드는 '가시리 10경'의 관광자원들은 매해 개최되는 문화 축제들과 제주도 올레길과도 연결되는 '가시리 걷는길' 등으로 활용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가시리 마을의 오름은 13가지가 있다. 설 오름, 병곳 오름, 따라비 오름, 큰사슴이 오름, 갑선이 오름, 번널 오름, 붉은 오름, 여문영아리 오름, 거문 오름, 구두리 오름, 마은이 옆 오름, 쳇망 오름이다. 제주도 오름은 한라산이 만들어질 적 용암이 솟아 오른 것을 의미한다. 오름들은 화산의 폭발식 분화에 의해 공중으로 방출된 화산 쇄설물들이 나온 구멍 주변에 쌓인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산보다는 확연하게 작지만 굉장히 다양하다. 분출물이 고르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이다. 가시리 마을의 오름들은 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가시리 마을의 열가지 아름다운 경치라고 하는 '가시리 10경'에서도 오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시리 마을의 오름들은 모두 아름답고 자연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보다 더 특색있는 것은 이름들이다.

설 오름은 오름의 생김새가 호미의 모양과 닮았다. 호미 서(鋤)자를 사용하여서 오름에서 설 오름으로 이름이 변형 된 것으로 본다. 병곳 오름은 큰 새가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큰 새를 가시리 마을 주민들은 봉황이라 일컫는다. 봉황이 돌아오는 모양이니 봉귀악(鳳歸岳)이라 하여 병곳 오름이 되었다. 따라비 오름은 조그만 알을 닮은 '알 오름'을 중앙에 두고 주변에



어머니 ‘모지 오름’, ‘장자 오름’, ‘새끼 오름’과 함께 땅 할아버지란 이름으로 ‘따라비 오름’이다. 다섯 개의 오름이 이어지면서 따라비 오름의 역사는 아름다워 ‘가시리 10경’에 올라 있다. 큰사슴이 오름은 옆에 붙어 있는 오름과 함께 크고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큰사슴이 오름이라 불린다. 갑선이 오름은 오름의 모양이 매미 굴뚝이 모습과 닮았다 한다. 갑선이 오름은 잔뜩 웅크리고 있는 굴뚝이를 닮은 모양과 같이 그 안에 다양한 야생초가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널빤지를 두 개 놓은 모양이라 하여 번널 오름, 흙이 다른 오름에 비해 유난히 붉어 붉은 오름, 여인이 머리를 푼 모습과 같다 하여 영아악(靈峩岳) 즉 여문영아리 오름, 숲이 우거져 검게 보이는 거문 오름, 강아지의 모리 모양과 같다 하여 구두리 오름, 예쁜 알 모양으로 생겨서 마은이 오름, 분화구가 체의 망과 닮아 쳇망 오름 등 가시리 마을의 오름 13개는 각자가 불리우는 이름에 모양에 따른 이유가 있다. 관광객들은 낯선 이름에 호기심을 갖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오름의 모양을 이미지화 하고 기억한다. 자연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는 이름은 관광 자원화 할 때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가시리 마을에는 10경이 있다. 녹산유채(鹿山油菜), 지조추로(地祖秋蘆), 대록전경(大鹿展景), 녹조장원(鹿祖牆垣), 춘굴화향(春橘花香), 봉귀청담(鳳歸靑淡), 가시춘궤(加時春蕨), 서울천선(鋤乙天線), 행기머채, 청선장천(靑蘚長川)이 그것이다. 녹산유채는 ‘가시리 녹산로’에 피는 유채꽃길을 말한다. 4월 유채꽃이 필 때에 녹산로에서는 유채꽃과 벚꽃이 노랗고 분홍색의 길을 만들어 내어 절경을 이룬다. 지조추로란 따라비 오름의 하얗게 피어나는 역새 물결, 대록전경은 큰 사슴이 오름 위로 올랐을 때 볼 수 있는 중산간 지역의 평원, 녹조장원은 큰사슴이 오름에서 따라비 오름까지의 잣성길, 춘굴화향은 봄에 피어나는 감굴의 꽃향기, 봉귀청담은 병곳 오름에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과 평원, 가시춘궤는 가



시리 마을의 봄 고사리, 서울천선은 호미와 닮은 설 오름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선(線), 행기머채는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머채’의 제주 방언으로 ‘지하 용암 돔’, 청선장천은 가시천의 푸른 이끼를 뜻한다.²³⁾

제 2절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주도 해안에서 위로 해발 90m에서 570m로 한라산에 닿기 전 지역을 중산간 지역이라 부르며 용암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중산간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말을 육성하는 곳으로 지정되었다. 중국 원나라의 영향이 컸으나 제주도는 그 전부터 땅의 특질과 특성을 따라 벼농사 등 보다는 동물을 기르는 목축이 성행했다.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은 가시리 마을에는 ‘갑마장’이 있었다. ‘갑마장’이란 말을 길러 육지로 보내는 역할을 했던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말이 나오는 곳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오랜 세월 무수히 많은 말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화적 흔적 중 하나로 ‘잣성’이 있다. 조선시대에 제주 지역의 중산간 목초지에 만들어진 목장 경계용 돌담을 의미하는 잣성은 가시리 마을의 오름들에 올라섰을 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흔적들로 확인할 수 있다.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와 결합이 되어 있으며 교육의 대상이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가치를 교육을 통해 보존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이 가능한 공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시

23)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 앞의 책, 2010, 모모프린코, p. 23~41.



리 마을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조랑말 체험공원 · 조랑말 박물관

조랑말 체험공원은 가시리 마을의 말 관련 문화를 한 번에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랑말 체험공원에 처음 들어서면 가을엔 억새풀이 무성한 입구에 달리는 말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말은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몇 백년 전 마을의 모습 그대로를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2> 조랑말 체험공원 입구의
말 조형물 1



<그림 3> 조랑말 체험공원 입구의
말 조형물 2





<그림 4> 조랑말 체험공원 내
마(馬)음 카페



<그림 5> 가시리 마을 지도

입구를 지나면 왼쪽으로 공원이 펼쳐지며 오른쪽으로는 가시리 마을 전체 지도가 디자인 되어 큰 판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원이 펼쳐지는 왼쪽 전방에는 조랑말 체험공원의 ‘마(馬)음 카페’가 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국내 최초의 리립 박물관 ‘조랑말 박물관’이 있고 그 앞으로 ‘따라비 승마장’이 있다. 조랑말 박물관 뒷 편으로는 방문객이 캠핑을 할 수 있는 ‘몽고식 게르장’이 위치해 있다.



<그림 7> 조랑말 박물관 입구



<그림 6> 조랑말 박물관 전경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조랑말 체험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조랑말 박물관은 시간을 복원하는 박물관이다. 말과 관련된 유물 및 문화예술작품이 100여개가 전시되어 있다.²⁴⁾ 제주 목동 말테우리의 삶과 제주 조랑말의 생태와 습성에 대한 유물들 중점을 이루고 있다. 조랑말 박물관이 최초의 리립 박물관인 만큼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은 마을에서 말을 목축하였던 마지막 테우리의 물건들이다.



<그림 8> 조랑말 박물관 내
테우리 유물 1



<그림 9> 조랑말 박물관 내
테우리 유물 2

‘옥상정원’은 박물관의 꼭대기 층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곳에서는 가시리의 관광자원인 오름들과 잣성의 흔적들을 한 눈에 조망 할 수 있다.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랑말 박물관 앞에 위치한 ‘따라비 승마장’은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이 있었던 자리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말들이 지내기 좋은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다. 말이 약 20마리가 있고 마구간을 갖추어 말이 달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비 승마장은 관광객들이 ‘갑마장’이 있었던 가시리 마을의 특성을 알게 하고 제주 조랑말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24) 제주 가시리 마을 홈페이지, <http://www.jejugasiri.net>, 2015.3.15. 검색





<그림 10> 따라비 승마장 전경



<그림 11> 조랑말 박물관의
옥상정원 전경

‘따라비 승마장’의 타 지역과 구별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조랑말과 친해지기’가 있다. 프로그램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말 먹이주기, 솔질하기, 말똥줍기, 안장채우기, 말 타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제주말의 특성을 방문객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말 먹이를 줄 때 주의할 점, 솔질의 중요성, 말똥에 대한 지식, 말과의 교감을 하여 평소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말에 대한 호기심 또한 충족시켜준다.



<그림 12> 마(馬)음 카페



<그림 13> 마(馬)음 카페 메뉴판



‘마(馬)음 카페’는 조랑말 체험공원을 들어와 왼쪽, ‘따라비 승마장’ 옆에 있다. 이곳에서는 승마 프로그램과 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승마 순서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다. ‘마(馬)음 카페’에서는 가시리 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다과를 판매한다. ‘조랑말 주스’는 이곳에서만 판매되는 음료로 인기가 높다. 말과 관련된 사진 엽서, 인형 등을 판매하기도 하고 마을을 안내하는 책자들이 구비되어 있어 마을을 소개하는 역할도 한다.

조랑말 박물관 뒤에 위치하고 있는 몽고식 게르장은 조랑말 체험공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안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류기간을 늘린다. 말과 관련되어 어떤 방식의 잠자리가 옛날에는 제공되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조랑말 체험공원에서 진행되어 온 문화교육들은 ‘창의파티 In Jeju’,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 ‘조랑말과 친해지기’ ‘승마 체험프로그램’,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이 있다.



<표 1>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창의파티 In Jeju

제목	창의파티 In Jeju		
장소	조랑말 체험공원	일시	2013년 3월 ~ 12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6시
대상	가시리 주민, 방문객	인원 수	30여명
목적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마을과 제주 발전에 기여		
주제	함께 나누는 생각이 제주를 바꿉니다.		
내용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이 소속된 전문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그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눔.		

‘창의파티 In Jeju’는 가시리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가시리 마을과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진행은 제주도와 마을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속된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 후 그 주제로 다른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다. 가시리 주민과 방문객들은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었으며 여러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표 2>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제목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장소	조랑말 체험공원	일시	1기 - 3월 15일~6월 14일 / 2기 - 7월 12일~10월 4일 (13주간 매주토요일 / 10시~13시)
대상	가시리 마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인원 수	최대 20명
목적	제주의 말을 주제로 다채로운 예술활동,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성적인 수업 진행		
주제	말과 함께하는 토요예술놀이터		
내용			
회차	교육주제	교육내용	
1주차	제주의 말 문화 이해하기	조랑말의 역사, 테우리의 사계절 등	
2주차	말과 교감하기	말 먹이주기, 털 고르기, 승마	
3주차	말 그리기	조랑말 관찰하고 특징 배우기, 그리기	
4주차	오름속 말 조형물 만들기	다양한 재료로 조랑말 표현하기	
5주차	마구간 만들기		
6주차	말 판화 만들기	판화찍는 법 배우기, 판화로 엽서 제작하기	
7주차	말을 활용한 디자인 작업	조랑말 악세사리 만들기, 족마만들기, 족마놀이	



8주차	말뚱과자 만들기	자연 생태계와 말뚱이야기, 말뚱과자 만들기
9주차	말 노래 만들기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노래만들기, 영상촬영
10주 차	말 가면 만들기	
11주 차	목마 만들기	자연물 활용해 팀별 목마만들기
12주 차	갑마장길로 피크닉	가족,친구, 선생님과 함께 갑마장길 트레킹
13주 차	종합발표 및 전시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The 재미진 마을, 가시리 문화를 입다』, 2014, 미발간 자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가시리 마을의 11세에서 13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말을 주제로 다채로운 예술활동,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성적인 수업을 진행 해오고 있다. 교육은 년 마다 2기에 걸쳐 13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별로 제주의 말 문화 이해하기로 시작하여 교감하기, 그리기, 조형물 만들기, 마구간 만들기, 판화 만들기, 말뚱과자 만들기, 노래 만들기, 가면 만들기, 목마 만들기 등의 수업주제가 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문화교육은 마을의 아이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마을에 대한 애착은 성장한 후에 외부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결국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게 된다.



<표 3>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조랑말과 친해지기

제목	조랑말과 친해지기		
장소	조랑말 체험공원	일시	화요일 휴관일 제외, 10시부터 5시까지
대상	방문객	인원 수	최대 30명
목적	제주말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		
비용	15,000원(승마 코스에 따라 변동)		
내용	<input type="checkbox"/> 조랑말 박물관 관람 <input type="checkbox"/> 제주말의 생김새, 털 감촉, 모양, 피부, 성격 소개 <input type="checkbox"/> 제주 조랑말과 접촉하여 만져보고 먹이 주기 <input type="checkbox"/> 안장을 올려보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솔질 등 말 관리 법 배우기 <input type="checkbox"/> 승마 체험		

‘조랑말과 친해지기’ 문화교육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객이 제주말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축문화의 발달로 말을 옛부터 키워왔던 제주도는 그 특성을 살려 승마체험을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사업의 주도로 제주도 외에 육지에서도 많은 승마장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제주도에서 승마를 체험하는 것은 큰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조랑말과 친해지기’는 단순한 승마 체험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말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먼저 방문객들이 조랑말 체험공원 내의 조랑말 박물관에 방문하여 학예사의 설명을 따라 제주말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제주말과 연관된 제주민들의 삶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김새, 털 감촉과 모양의 특이성, 성격 등을 알아보고 직접 제주 조랑말과



접촉, 먹이 주기 체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말 위에 안장을 올려보고 말의 진드기를 제거하는 솔질 등의 말 관리법까지 숙지한 후에 승마 체험을 시작한다. 목축업이 주된 생업이었던 제주도의 다른 지역 승마장과 차별화된 것으로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여주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4>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

제목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		
장소	조랑말 체험공원	일시	화요일 휴관일 제외, 10시부터 5시까지
대상	방문객	인원 수	최대 30명
목적	제주 조랑말에 대한 이해		
비용	10,000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 하나 뿐인 도자기 조랑말 꾸미기 : 흰색인 도자기 말에 매직 등으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주어 자신만의 말 만들기 □ 추억을 담아 마시는 머그컵 만들기 : 흰색 도자기 컵에 매직 등을 이용하여 제주말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 □ 말통과자 만들기 : 말의 통 모양을 관찰하고 밀가루, 코코아, 버터, 설탕으로 말통 과자 만들기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 조랑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세상에 하나 뿐인 도자기 조랑말 꾸미기, 추억을 담아 마시는 머그컵 만들기, 말통과자 만들기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들은 개별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도자기 조랑말 꾸미기와 머그컵 만들기로 조랑말의 생김새와 색깔 등



의 특이성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이다. 말뚥과자 만들기는 말을 기르지 않는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말뚥 모양을 관찰하고 그것과 비슷한 모양의 쿠키를 만드는 것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말뚥의 모양을 배우고 유기농 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쿠키를 만들어 먹는 것 하나와 말뚥이 지니고 있는 생태학적인 면을 알려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뚥이 말을 키우는 지역의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땀나 무가 부족할 때에 연료로도 쓰이는 선순환적인 기능을 이해하면서 더 나아가 지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활동이다.

<표 5>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

제목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 (도교육청 지정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장소	조랑말 체험공원	일시	2014년 4월 ~ 11월 약 2시간 소요
대상	제주도민 초·중·고등학생	인원 수	최대 30명
목적	제주말과 함께하는 신체, 정신, 감성의 발달 도모		
비용	3000원 (교육청 10,000원 지원)		
내용	<input type="checkbox"/> 조랑말 박물관 관람으로 몰테우리의 사계절과 조랑말의 습성, 제주 역사 속 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조랑말과의 교감을 통한 친해지기/ 승마, 먹이주기 체험/ 문화 체험활동(말뚥과자 만들기/ 도자기 말 꾸미기 등) <input type="checkbox"/> 말 관련 예술작품 관람, 전통 놀이 체험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는 도교육청이 지정한 전통문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예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관람으로 시작하여 제주 조랑말과의 교감, 먹이주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랑말과 친해지기’와 말똥과자 만들기, 도자기 말 꾸미기 등의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을 함께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목표 외에 가시리 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제주도 내에 가시리 마을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겸하였다.

<표 6>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승마 체험프로그램

제목	승마 체험프로그램				
장소	조랑말 체험공원	일시	화요일 휴관일 제외, 10시부터 5시까지		
대상	방문객	인원 수			
목적	말을 타고 가시리의 오름과 잣성 등을 돌아보며 힐링 체험				
내용					
기본코스					체험
체험승마	초원승마 A	초원승마B	초원승마 C	외승코스	먹이주기 (건초)
7,000	12,000	25,000	35,000	100,000	2,000

출처 : <http://www.jeugasiri.net>



승마 체험프로그램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시리의 오름과 잣성 등을 돌아보며 힐링 체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보자부터 기술자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으며 초보자에게는 승마를 하는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가시리가 지니고 있는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교육으로 힐링 체험을 겸할 수 있다.

2. 가시리 문화센터

가시리 문화센터는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목적 공연장, 로컬푸드 식당, 연습실 겸 녹음실, 사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문화센터에서는 가시리 문화학교가 진행되어 밴드와 많은 동아리들이 운영된다. 현재 문화센터 내 동아리 회원은 약 120여명이 넘으며 동아리 회원들



<그림 14> 가시리 문화센터

은 활동을 통하여 마을 내 문화를 새로 접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마을에서 년마다 개최되는 여러 축제에서 문화적 성취를 뽐내기도 한다.

가시리 문화센터 내에는 가시리 마을주민들이 활동하는 문화동아리가 있다. 동아리 전체 인원은 약 120여명이며 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시리밴드, 타악동아리, 국궁동아리, 댄스스포츠, 기공동아리, 어린이댄스



25) 지금중,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 『로컬리티 인문학 6』, 2011, p. 331.

스포츠, 사진동아리가 있다. 동아리들은 연말 ‘가시리 마을 축제’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공개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가시리 밴드나 타악동아리 등은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이나 다른 마을들로도 초청 공연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 댄스스포츠동아리는 제주도 내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적이 있고 어린이 댄스스포츠 동아리를 직접 가르친다.

<표 7> 조랑말 체험공원 내 문화교육 : 가시리 문화동아리

제목	가시리문화동아리		
장소	가시리 문화센터	일시	2010년 ~ 현재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인원 수	약 120여명
목적	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		
동아리명	주요내용		
가시리 밴드	기간	2010년 3월 결성~현재	
	인원	10명(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	
	구성	베이스, 일렉기타, 건반, 드럼, 트럼펫, 색소폰, 싱어로 구성	
	활동	<input type="checkbox"/>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 공연, 가시리 마을 축제 공연 <input type="checkbox"/> 매주 일요일 연습	
타악 동아리 “두드림”	기간	2010년 3월 결성~현재	
	인원	멤버 30명(가시리부녀회원 중심으로 구성)	
	구성	모듬북과 풍물북, 장구, 팽과리 구성,	
	활동	<input type="checkbox"/> 주민30명으로 구성(초급반, 고급반) <input type="checkbox"/>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연습	



국공 동아리	기간	2011년 9월 결성~현재
	인원	가시리 중장년남성 15명으로 구성
가시리 댄스 스포츠	인원	부녀회 20여명
	활동	<input type="checkbox"/> 매주 월요일 연습, 수요일 연습 <input type="checkbox"/> 살사, 차차차, 룸바등 다양한 댄스실력
기공 동아리	인원	<input type="checkbox"/> 노인회 40여명 중심으로 회원구성 <input type="checkbox"/> A팀 : 50대~60대, B팀 : 70대~80대
	활동	<input type="checkbox"/> 매주 수, 금요일 연습 <input type="checkbox"/> 기공으로 삶의 활력 및 건강증진
가시리 어린이 댄스 스포츠	인원	초급반(저학년) 12명, 고급반(고학년) 10명
	활동	댄스스포츠 동아리원들이 선생님이 되어 강습
사진 동아리	기간	2012년 9월 결성
	인원	가시리 주민중 사진을 사랑하는 청년, 중장년층 7명이 자발적으로 결성
	활동	마을의 사라져가는 문화, 자원, 경관 등 촬영 및 자료 기록 중

출처 :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The 재미진 마을, 가시리 문화를 입다」, 2014, 미발간 자료



3. 가시리 창작지원센터·가시리 목공방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는 예술인들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입주 예술인에게는 월 80만원의 생활 지원비와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혹은 마을 내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²⁶⁾ 이러한 공간의 조성은 주민들이 문화에 지속적으로 인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여러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가시리 마을에서 작업공간을 갖게 된 예술가들은 가시리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접하게 되며 그들은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을 창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마을의 특색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재능을 주민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마을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마을의 축제나 문화공연에 예술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수준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갈수록 높이가 평가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문화와 예술이 합쳐졌을 때 가질 수 있는 효과로써 타지역민들에게 새롭고 개성있게 다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유발한다. 가시리 입주 예술인들이 커뮤니티 아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방적인 시혜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상호 수혜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²⁷⁾

가시리 목공방은 50여평의 규모를 갖고 있다.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작업 공간



<그림 15>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26) 지금중, 앞의 논문, p. 329.

27) 지금중, 앞의 논문, p. 330.



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입주한 예술가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공교실을 운영한다. 가시리 창작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레지던스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는 ‘어린이 영화교실’, ‘등공예교실’, ‘어린이 방송교실’,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 ‘벽타기 프로젝트’, ‘어린이 자연스케치 탐험대’의 문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가시리 목공방에서 진행된 문화교육으로는 ‘목공교실’이 있다.

<표 8>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어린이 영화교실

제목	어린이 영화교실		
장소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일시	12회(2010.4월~2011.4월)
대상	가시리 마을 어린이	인원 수	매회 어린이 12명
목적	시나리오쓰기, 방송촬영 기법, 촬영장비익히기, 단편영화 촬영 등		
내용	도시에 비해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농촌아이들을 위해 영상 촬영 기법과 단편영화제작 방법을 직접 영화감독이 한팀이 되어 교육		

‘어린이 영화교실’은 가시리 마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시에 비해 문화적인 혜택이 적은 농촌아이들을 위해 영상 촬영 기법과 단편영화제작 방법을 직접 영화감독이 한 팀이 되어 가르쳐 주었던 교육이었다. 촬영대상은 가시리



마을 내의 자연경관과 생활모습들로 항상 흔하게 보던 마을의 구석구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상으로 만듦으로써 마을에 대한 사랑을 고양시켰다.

<표 9>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등공예 교실

제목	등공예교실		
장소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일시	6회(2011년도)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인원 수	-
목적	항아리등, 풍등, 말발굽등 만들어보고 마을 꾸미기		
내용	마을을 상징하는 창작등, 전통등을 만들어보고 공예의 즐거움 제공		

‘등공예 교실’은 가시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항아리 등, 풍등, 말발굽 등을 만들어보고 마을을 꾸미는 교육이었다. 2011년도 마을 발전의 초창기에 주민들은 ‘등공예교실’을 통해 공예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든 작품을 가시리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마을 꾸미기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박물관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유물들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다르게 마을 주민들 에서부터 시작하여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



<표 10>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

제목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		
장소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일시	2011. 10월
대상	가시리 마을 어린이	인원 수	20여명
목적	마을 어린이들과 말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재밌게 말을 이해하고 갑마장과 말테우리의 목축문화를 학습		
내용	<input type="checkbox"/> 창작지원센터에서 말 목축 목장으로 나가 이젤을 세워 놓고 말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림. <input type="checkbox"/> 1등으로 뽑힌 말그림은 후에 갑마장길 표지판 로고로 쓰임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는 가시리 마을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말 그림 대회를 통해 말을 재밌게 이해하고 갑마장과 말테우리의 목축문화를 학습하는 목표를 지닌 문화교육이다. 마을 어린이들은 실내에서 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말 목축하는 목장으로 나가 직접 이젤을 세워 놓고 말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림들은 수상자를 가려 1등으로 뽑힌 그림을 현재 갑마장길 표지판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표 11>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어린이 자연스케치탐험대

제목	어린이 자연스케치탐험대		
장소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가시리 마을	일시	2012년 6개월
대상	가시리 마을 어린이 11~15세	인원 수	10명



목적	마을의 자연경관 등을 관찰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자연을 그리는 방법 터득
내용	재미있게 걷고 타고 뛰고 즐겁게 자연을 탐험하며 그림을 그리며 자연을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어린이 감성프로그램

‘어린이 자연스케치 탐험대’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가시리 마을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미있게 걷고 타고 뛰고 즐겁게 자연을 탐험하며 그림을 그리며 자연을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어린이 감성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마을의 자연 곳곳을 돌아다니며 스케치를 할 만한 본인만의 장소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표 12>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벽타기 프로젝트

제목	벽타기놀이 프로젝트		
장소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가시리 마을	일시	2011년 3월 ~ 12월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인원 수	20여명
목적	마을 꾸미기, 공공미술에 마을 주민과 함께하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벽에 주민이 원하는 제주의 풍경을 직접 벽화로 그림. □ 주민들을 위한 공공미술에 주민 스스로가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여럿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은 이웃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 		



‘벽타기 프로젝트’는 가시리 마을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을 꾸미는 공공 미술프로젝트에 마을 주민과 함께하며 벽화그리기를 한 문화교육이다. 주민들은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벽에 원하는 제주의 풍경을 직접 벽화로 그리기 위하여 벽화를 어떤 방식으로 칠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를 배웠다. 또한 ‘벽타기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꾸미기에 기여하며 마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사례 중 하나이다.

4. 유채꽃 프라자

가시리 마을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채꽃 프라자는 다른 문화체험공간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유채꽃 프라자 바로 앞에는 풍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을 만큼 지대도 높은 곳에 있어 가시리 마을이 한 눈에 들어온다. 농촌체험연수시설로써 가시리 마을의 마을 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하러 오는 방문객이나 도농 교류를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다. 또한 커뮤니티들의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워크숍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숙박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표 13>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자연물공예

제목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자연물공예		
장소	유채꽃 프라자	일시	2013년 8월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인원 수	어린이, 학부모 60명
목적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체험프로그램		
내용	솔방울 동물만들기, 연잎밥 만들기, 나무문패만들기 등을 진행.		

유채꽃 프라자에서는 커뮤니티 활동 중 하나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 자연물 공예’가 진행되었다. 가시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총 60명이 참여하였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체험프로그램으로 솔방울 동물만들기, 연잎밥 만들기, 나무문패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아이와 부모, 그리고 마을의 가족들이 서로 한 자리에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듦으로써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진행들은 하나 하나가 모여 마을의 발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



5. 가시리 디자인카페

가시리디자인카페는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다. 원래 마을회관의 별관이었던 곳을 새로 리모델링하여 꾸몄다. 가시리 마을의 문화 사업들을 위한 전시회들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2009년 가시리 건축&조형물 프로젝트 전시회, 2010년 가시리델픽조형물 전시회, 2010년 가시리목축박물관(현 조랑말박물관), 가시리문화센터 설계 전시전, 2010년 텐트스튜디오 전시회 등 매년 가시리와 관련 있는 전시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렇듯 주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 사업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에게는 커피가 공짜로 제공되면서 방문하기 시작한 소소한 주민들의 모임과 독서, 인터넷이용이 가능한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객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마을방문자센터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어 가시리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마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⁸⁾

28) 2015. 12. 17. 유채꽃 프라자, 이0희 사무장, 심충면담.



<표 14> 가시리 디자인 카페 내 문화교육 : 교육을 통한 마을 주민 역량 높이기

제목	교육을 통한 마을 주민 역량 높이기		
장소	가시리 디자인 카페	일시	2009년 ~ 2012년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인원 수	-
목적	주민간의 마을사업에 대한 자신감 증대 및 마을 공동체 의식의 확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간, 주민과 전문가 사이의 소통과 마을의 자존감 교육 실시 □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 참여 교육 실시 □ 주민,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계층별 주민 맞춤형 교육 실시 <p style="margin-left: 20px;">출처 :지금중,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 『로컬리티 인문학 6』, 2011.</p>		

‘교육을 통한 마을 주민 역량 높이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 주민간의 마을사업에 대한 자신감 증대 및 마을 공동체 의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내용은 주민간, 주민과 전문가 사이의 소통과 마을의 자존감 교육 실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 참여 교육 실시, 주민,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계층별 주민 맞춤형 교육 실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주체의 협력체계에 있어 마을회와 발전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마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이다.



<표 15> 가시리 디자인 카페 내 문화교육 : 아트북 만들기 교실

제목	아트북만들기 교실		
장소	가시리 디자인카페	일시	총4회 (2014. 5.16 / 5.19 / 5.23 / 5.26)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인원 수	매회 20명씩 총 80여명
목적	주민의 일상생활 기록과 기억을 위한 책을 손으로 만들어 보기		
내용	여행스케치북 만들기, 가족다이어리 만들기, 액자를 겸한 앨범 만들기, 즐거운 북아트 어린이교실을 진행함.		

가시리 디자인 카페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문화교육은 ‘아트북 만들기 교실’이 있다. 가시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기록과 기억을 위한 책을 손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이었다. 개인적인 일로 마을의 문화교육에 참여도가 낮은 30대 주부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²⁹⁾

6. 참, 곱다(茶) 공방

‘참, 곱다(茶)’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야생으로 서식하는 야생화와 야생초를 재료로 하여 직접 차를 만들고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자연 체험장이다.³⁰⁾ 농촌교육

29) 2015. 12. 17. 유채꽃 프라자, 이0회 사무장, 심충면담.

30)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 앞의 책, p. 27.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야생화, 야생초를 집적 재배하는 법, 채취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

<표 16> 참, 곱다(茶) 공방 내 문화교육 : 천연염색교실

제목	천연염색교실			
장소	참, 곱다(茶) 공방	일시	2010년 ~ 현재까지 년 2회	
대상	가시리 마을 주민, 방문객	인원 수	매회 20여명	
목적	야생의 재료를 이용해 차를 만들 수 있다 덩음차의 제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천연 염색을 통해 풀과 나무 속에 숨어있는 색을 알 수 있다. 전통 천연 염색 과정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천연 염색의 가치와 염색 제품 유지 및 활용 방법을 알 수 있다.			
비용	10,000원			
회차	날 짜 (토)	시간	품목	내용
1회	04월 04일	14:00 ~ 16:00	천 연 염 색 (검정색)	제주 오름의 풀과 나무를 이용한 색깔 알아보기 (손수건)
2회	04월 11일		차 만들기	수제차를 만드는 순서 알아보고 실습하기
3회	04월 18일		천 연 염 색 (노랑색)	제주 오름의 풀과 나무를 이용한 색깔 알아보기 (손수건)
4회	04월 26일		차 만들기	쭉차를 이용한 가루차 만들기 + 가루차 이용한 떡 만들기
5회	05월 02일		천 연 염 색 (분홍색)	제주 오름의 풀과 나무를 이용한 색깔 알아보기 (손수건)
6회	05월 09일		차 만들기	녹차 만들기 + 찻잎 이용 주먹밥 만들기
7회	05월 16일		천 연 염 색 (녹색)	제주 오름의 풀과 나무를 이용한 색깔 알아보기 (손수건)



8회	05월 23일		차 만들기	꾸지뽕잎차 만들기
9회	05월 30일		천연염색 (파란색)	발효쪽을 이용하여 염색하기(손수건) + 염 색 손수건 활용법
10회	06월 06일		차 만들기	뽕잎차 만들기 + 찻잎 이용 순두부, 피자빵 만들기

출처: 가시리 마을 카페 <http://cafe.daum.net/ga-si>

참, 곱다(茶) 공방은 ‘천연염색교실’을 운영한다. 가시리 마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야생의 재료를 이용해 차 만들기, 덕음차의 제조 과정의 이해, 천연 염색을 통해 풀과 나무 속에 숨어있는 색을 알기, 전통 천연 염색 과정을 바르게 알기, 천연 염색의 가치와 염색 제품 유지 및 활용 방법을 알기가 그 목적이다.



제 4장 가시리 마을 문화교육 분석 및 발전방안

제 1절 운영주체의 협력체계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은 마을 발전 사업의 콘텐츠 중 하나이다. 운영주체의 협력체계는 이러한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이다. 정부나 외부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운영주체는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협력체계는 마을에서 해방 이후부터 자리를 잡고 행정을 보던 ‘마을회’와 여러 마을 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유채꽃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그리고 컨설팅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6> 가시리 마을
운영주체 협력체계



제주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가시리 마을에 말을 키우는 국영 목장이 크게 있었다. 근대 이후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어촌계’,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목장 조합’ 등이 생겨났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던 가시리 마을 또한 목장 조합이 생겨났다. 목장 조합은 ‘마을회’로 이름이 변화되었고 최근 들어 법인으로 전환되었다.³¹⁾ 문화교육을 포함하는 마을 발전 관련 사업 행정은 법인 마을회가 맡고 있다.

‘유채꽃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는 마을의 여러 행정을 오래 진행 해왔던 ‘마을회’와 다른 사업들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집단’과 성격이 다르다.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 내었다. 문화 관련 부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는 4년 동안의 교육을 통한 마을 주민 역량 높이기 문화교육을 받았다. 위원회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하면서 그 교육을 통해 성장한 것이다.

세 가지 운영주체 협력체계는 ‘유채꽃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함께 교육들을 개발·운영하고 ‘마을회’에 행정을 맡겨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따르며 움직인다. 이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지원이 멈추었을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마을 자체만으로 진행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의 부족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체계이다.

31) 2015. 08. 05. 조랑말체험공원, 이어도 사나 임용 팀장. 심층 면담.



제 2절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교육

1. 마을 주민 중심의 가시리 마을 문화교육

마을 주민 중심의 문화교육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로 외부의 전문가가 유입되면서 마을의 지속적인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둘째로 마을 자체의 문화적 역량의 증대가 가능하다. 농촌 마을은 도시에 비하여 문화적 혜택이 적은편이 대부분이다. 마을 주민 중심의 문화교육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문화 향유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 세 번째로 어린이들이 문화 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예비 예술인들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언급했던 지속적인 마을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부분으로써의 문화교육을 가시리 마을은 2009년부터 연차별로 실시하였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여 마을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마을 발전 사업의 1년차에서 주민들에게 마을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은 발전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이 지닌 가능성을 알아본 문화기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가시리 마을로 들어왔다. 주민들은 마을의 문화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들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힘들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선 지역의 문화를 알아내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의견의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했다. 때문에 사업 1년차에서는 주민 간, 주민과 전문가 사



이의 소통과 마을의 자존감 교육을 실시하였다.

2년차 때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고취를 위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알고 있는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화기획은 제대로 된 구색을 갖추기 어렵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간들이 만들어 지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복잡한 부분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일의 진행을 맡는다. 이 단계에 지역 주민들이 소외 된다면 지역이 가진 문화가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문화를 지역민처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 3년차에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마지막 년도에는 계층별 주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들은 지역민과 전문가를 한 대 어우르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있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이 지니는 두 번째 의미인 마을 자체의 문화적 역량의 증대가 가능한 것은 가시리 마을의 ‘가시리 문화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에 개관된 문화센터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가시리 문화학교는 400여 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약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는 댄스스포츠, 타악, 기공, 국궁 등 13개가 있으며 어린이 문화교실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 처음 문화센터가 개관을 하였을 때 주민들이 배우고 싶거나 향유하고 싶은 문화 활동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밴드와 동아리가 개설이 되었다.

주민들은 각자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초빙된 제주도 내의 전문가에게 활동을 교육 받는다. 문화학교에서 배우고 즐긴 문화는 ‘가시리 문화축제’에서 펼쳐



진다. 300여명의 문화 동아리 활동 인원 중 축제 행사 단상에 100여명이 올라 간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에서 원하는 문화교육을 받고 익혀 축제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 대상의 문화교육이 지니는 의미는 마을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의 증대에 따른 미래 가능성 확보이다. 가시리 마을의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으로 알아 볼 수 있다. 가시리창작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이다. 예술인들은 마을에서 지원을 받는 대신에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스케치 탐험대’, ‘청소년 영화교실’, ‘전통 등공예교실’, ‘어른을 위한 요가교실’ 등이 있다. ‘전통 등공예교실’에서 진행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조랑말 박물관에 조형물로 전시되는 등 대상이 어른을 포함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관심사나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된다.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역적 조건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마을이 지니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2. 방문객 중심의 가시리 마을 문화교육

가시리 마을 내에서 방문객 중심의 문화교육은 ‘조랑말 체험공원’ 내에서 진행된다. 타 지역에서 가시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마을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화, 특산물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많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히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는 것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문화에 관련되어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방문객이 마을의 문화를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조랑말 체험공원의 ‘따라비 승마장’은 승마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종류의 말이 있다. 이 중 ‘조랑말과 친해지기’ 프로그램은 말 먹이주기, 솔질하기, 말똥줍기, 안장채우기, 말 타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말 먹이를 줄 때 주의할 점, 솔질의 중요성, 말똥에 대한 지식, 말과의 교감을 통해 평소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제주도에서 존재하는 조랑말과 흔히 알고 있는 말과의 차이점 또한 직접 말들을 비교하며 알려준다. 제주도의 특색 있는 역사와 가시리 마을의 지역적 특징, 역사적 부분들까지 습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따라비 승마장 옆에 위치한 ‘마(馬)음 카페’에서는 5세~12세 어린이들이 말똥처럼 생긴 말똥초코과자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이 체험활동은 말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아이들이 말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조랑말 박물관’에서 가시리 마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학예사를 통해 설명 들을 수 있다.

또한 조랑말체험공원 내에서는 ‘마음 찾는 마음(馬音)여행’ 프로그램으로 가시리 마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생업으로 이어왔던 목축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말’과 관련된 교육인 승마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를 갖고 있다. 주제는 제주 교육, 연구 여행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유산, 문화와 민속, 생태와 체험을 아우르는 “제주마을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엮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방문, 박물관 견학, 마인드 향상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인원과 날씨, 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승마교육을 겸하여 가시리 마을의 소개, 관광자원 방문, 그리고 마을 외 지역의 관광지 방문으



로 연결되어있다. 가시리 마을과 제주도의 경치를 알리며 관광객 스스로의 리더십, 마인드, 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제 3절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의 결합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들은 대부분이 지역문화와 결합되어 있다.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문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이다. 가시리 마을은 오름이 많고 넓게 이어진 평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환경으로써 ‘말 목축 문화’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 갑마장이 있었고 잣성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가장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점이다.

가시리 마을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진행된 문화교육은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 문화교육인 ‘어린이 영화교실’과 ‘어린이 자연스케치 탐험대’, ‘벽타기 프로젝트’, 유채꽃 프라자에서 진행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 자연물 공예’, 참, 곱다(茶) 공방의 ‘천연염색교실’이 있다. ‘어린이 영화교실’은 창작지원센터에서 가시리 마을 어린이 12명을 대상으로 가시리 마을 내의 자연 경관과 생활 모습 활용하여 영상 촬영 기법과 단편 영화 제작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으며 ‘어린이 자연스케치 탐험대’는 가시리 마을 어린이 10명을 마을의 자연경관을 탐험하며 자연을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었다. ‘벽타기 프로젝트’는 가시리 마을 주민 20여명이 마을의 벽에 벽화 그리기를 배우면서 하는 문화교육이었으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 자연물 공예’는 가시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총 60명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체험프로



그램으로 솔방울 동물만들기, 연잎밥 만들기, 나무문패만들기를 하였다. 참, 곱다(茶) 공방의 ‘천연염색교실’은 가시리 마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야생의 재료를 이용해 차 만들기, 덕음차의 제조 과정의 이해, 천연 염색을 통해 풀과 나무 속에 숨어있는 색을 알기, 전통 천연 염색 과정을 바르게 알기, 천연 염색의 가치와 염색 제품 유지 및 활용 방법을 알기가 그 목적이며 가시리 마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가시리 마을의 활용 가능한 역사적 환경인 ‘말 목축 문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 교육은 조랑말 체험공원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조랑말과 친해지기’,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 ‘승마 체험 프로그램’,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내의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가시리 마을의 11세에서 13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말을 주제로 년 마다 2기에 걸쳐 13주차별로 제주의 말 문화 이해하기, 교감하기, 그리기, 조형물 만들기, 마구간 만들기, 판화 만들기, 말똥과자 만들기, 노래 만들기, 가면 만들기, 목마 만들기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조랑말과 친해지기’의 내용은 조랑말 박물관에 방문하여 학예사의 설명을 따라 제주말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제주말과 연관된 제주민들의 삶에 대한 교육을 듣고 제주말의 생김새, 털 감촉과 모양의 특이성, 성격 등을 알아본 다음에 직접 제주 조랑말과 접촉, 먹이 주기 체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말 위에 안장을 올려보고 말의 진드기를 제거하는 솔질 등의 말 관리 법까지 숙지한 후에 승마 체험을 시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 조랑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내용은 세상에 하나 뿐인 도자기 조랑말 꾸미기, 추억을 담아 마시는 머그컵 만들기, 말똥과자 만들기로 이루어져 있다.



‘승마, 예술, 놀이로 재미있게 이해하는 제주 말(馬)문화’는 앞서 언급된 ‘조랑말과 친해지기’와 ‘제주말(馬) 문화체험활동’을 한번에 진행하는 교육이다.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는 가시리 마을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뉜 말 목축하는 목장으로 나가 직접 이젤을 세워 놓고 말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는 대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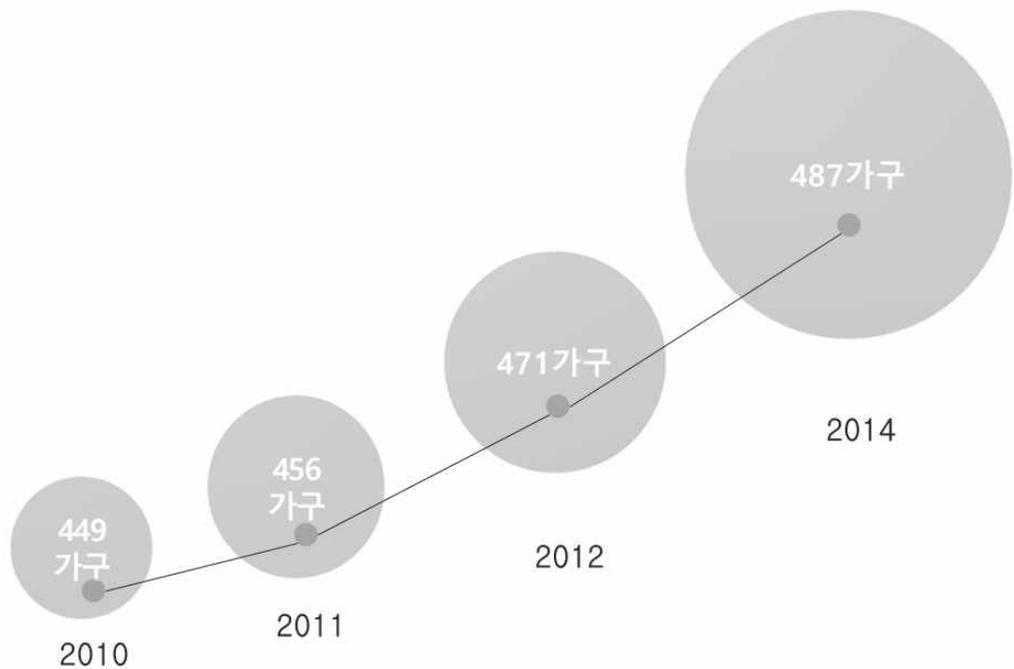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의 결합은 해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진행이 어렵지 않게 계속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한다면 그 자체가 특이성을 띄게 되어 타 지역과의 차이점을 갖게 되고 이는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지역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그에 따른 자긍심 고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 4절 농촌지역활성화 성과

제주 가시리 마을은 농촌지역활성화의 성과인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를 모두 이룬 마을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변화’ 또한 마을의 변화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가시리 마을의 인구는 문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2010년부터 꾸준하게 가시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0년 449가구에서 2011년 7가구가 늘어난 456가구부터 시작하여 2012년 15가구가 늘어난 471가구, 2014년 16가구가 늘어난 487가구가 되었다.



<그림 17> 가시리 마을의 인구증가

출처 : 통계부



귀촌인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총 20가구 34명이다. 외부인이 15가구 25명이
 며 출향민이 5가구 9명으로 마을을 떠났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가시리 마을 귀촌자 내역

귀촌자 내역						
직책	성명	성별	귀촌 연도	귀촌 전 주업	현재주업	주요재능 (특기)
문화활동가	지0종	남	2010	문화연대 사무총장	농업	컨설팅
주민	방0영	여	2010	선생님	농업	교육
문화센터 관리사	김0완	남	2011	엔지니어	농업	엔지니어, 목공
주민	오0미	여	2012	미술관 디렉터		미술관 디렉터
주민	0경	여	2011	인테리어	주부	인테리어
주민	최0은	남	2012	건축	건축	건축, 인테리어
주민	조0희(별)	여	2012		작가	그림
주민	0진		2007	고서 서적 운영	친환경농업	
주민	길0자		2007	선생님	친환경농업	
화가	박0옥	남	2011	화가	화가	그림
주민	김0혜	여	2012	학생	승마강사	애니메이션
주민	서0경	여	2012	회사원	친환경농업	
주민	염0종	남	2012	회사원	친환경농업	
주민	김0훈	남	2010	공무원	농부	
주민	권0늬	여	2010	서비스업	농부	
주민	김0리	여	2010	학생	학생	
주민	김0민	남	2010	학생	학생	
주민	남0우	남	2012	회사원	농업	



주민	김0민	여	2013	애니메이션 작가	작가	
주민	강0아	여	2003	서비스업	카페운영	
주민	샤00마	여	2013	작가	작가	
주민	김0정	여	2013	학생	학생	
주민	임0용	남	2013	사회복지사	서비스업	
주민	장0영	여	2012	여행사근무	서비스업	
주민	박0연	여	2014	중국어통역	서비스업	
주민	정0홍	남	2014	회사원	농업	출향민
주민	고0찬	남	2013	회사원	농업	출향민
주민	강0익	남	2014	회사원	농업	출향민
주민	김0필	남	2011	회사원	농업	출향민
주민	강0순	여	2011	주부	농업	출향민
주민	김0한	남	2011	학생	학생	출향민
주민	김0신	남	2012	회사원	농업	출향민
주민	변0선	여	2012	학원강사	농업	출향민
주민	김0윤	여	2012	유아	유아	

출처 :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The 재미진 마을, 가시리 문화를 읽다」, 2014, 미발간 자료

<표17> 중 귀촌인들의 전 주업 부분을 살펴보면 전문 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시리 마을의 ‘소득증대’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마을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랑말 체험공원’의 방문객 수가 연간 약 77,000명이 방문하고 있다.³²⁾ 가구 수의 8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에서 새로운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시리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동아리의 활동에 힘입어 개최되는 ‘가시리 문화축제’와 조랑말체험공원에서 진행되는 ‘가시리 조랑말 체험 축제’이다. 가시리 마을은 축제로 인

32)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The 재미진 마을, 가시리 문화를 읽다」, 2014, 미발간 자료, p.



하여 방문하는 방문객 덕택에 부가 효과를 보고 있다. ‘가시리 문화축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 준비, 운영을 하여 참여하는 축제로 마을축제를 통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측면이 크다. 2011년부터 주민들의 문화동아리 활성화로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가시리 문화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마을 축제이다. 그러나 처음 200여명에 그쳤었던 참석 인원은 2013년 여러 지역에서 축제를 찾아오는, 400여명이 참석하는 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참여자의 증대를 보여주고 있다. ‘가시리 조랑말 체험축제’는 마을의 특이성인 목축문화를 살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이다. 조랑말 체험공원 내에서 진행되는 문화교육과의 결합이 주목할 만하다. 2013년 처음 개최되어 3000여명의 방문객이 있었다. 두 축제로 몰려드는 방문객 증가로 마을 내 식당의 손님이 늘어나는 등 경제소득을 가져오고 있다.

가시리 마을 주민들의 문화부분 인식의 변화는 문화교육의 주민 참여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18> 문화교육 부문 주민 참여현황

순서	프로그램명	대상(수혜자)	참여인원
1	컴퓨터교실	노인회	20명
2	북아트교실	주민전체	80명
3	자연물공예교육	어린이, 학부모	30명
4	사업활성화 위한 주민워크숍	주민전체	100여명
5	재미진 마을디자인	어린이	40명
6	말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	20명



7	바람땡자연놀이	어린이	30명
8	어린이방송교실	어린이	15명
9	자연스케치탐험대	어린이	10명
10	제라한 예술공작 프로젝트- 벽 화그리기	청소년	20명
11	창의파티	주민,도민	30명
12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린이	40명
13	가시리공공디자인프로젝트	주민,마을	30명
14	가시리타악동아리	주민/부녀자	30명
15	가시리밴드동아리	주민/혼성	15명
16	기공동아리	주민/노인	40명
17	댄스스포츠	주민/부녀자	20명
18	어린이댄스스포츠	주민/어린이	20명
19	사진동아리	주민/청장년	10명
20	등공예교실	주민	20여명
21	아트북교실	주민	20여명*4회
22	천연염색교실	주민	40여명
23	약초체험교실	주민	30여명
24	목공교실	주민	15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The 재미진 마을, 가시리 문화를 읽다」, 2014, 미발간 자료

<표18>을 보면 마을 전체 487가구 중에서 24개의 프로그램에 약 780여명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참여한 것이다.



가시리 마을은 2010년 이래로 38가구의 수가 늘어 여러 전문인력을 포함한 인적자원을 얻었으며 농업으로만 치우쳐 있던 소득 부분에 있어서 연간 약 80,000명이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공간의 존재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 주민들 중 약 780여명이 24개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

가시리 마을은 문화교육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소실되어져만 가던 지역문화의 존속·발전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으며 동아리·마을 축제로 축적된 문화 활동이 가능해 졌으며 주민의 문화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렇듯 가시리 마을 내 주민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들 내에서 인식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증가되어 유동적이었던 인구가 안정되고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마을 내 활동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홍보 대사로 재탄생되고 있다. 가시리 마을의 관광객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가시리 마을은 외부인들에게 제주도의 4·3 사건으로 무너진 작은 마을에서 예술문화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박물관 내 체험이 가능한 활동이 있으며 승마교육도 가능한 마을로 탈바꿈되었다.



제 5절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가시리 마을은 문화역량이 축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화교육들이 개발·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 수요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화동아리들의 활동들은 시간과 함께 쌓여가며 좋은 실력들로 다져져 가고 있다. 처음에는 동아리 내에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문화역량 강화로 그쳤던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초청을 다니는 것으로 발전된 것을 보아 확인이 가능하다.³³⁾

다양한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은 주민을 성장시키고 방문객을 끌어 모으며 지역을 활성화 시켰다. 이는 우선 기본적으로 좋은 교육이 개발 되었고 운영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운영주체의 협력체계가 그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위원회'와 다수의 마을 만들기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상호작용, 누구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마을회'의 행정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협력체계는 변화가 잦다. 마을회의 대표자나 위원회원들이 변동될 수도 있으며 외부 전문가 집단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변화가 왔을 경우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함께 개발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외부 전문가가 조언을 하여 채워 왔다면 가시리 마을은 이제 내부에서 문화리더를 양산해야 한다. 그 방법은 귀촌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것과 마을 내 관련 교육을 만들어 꾸준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마을회의 행정이 대표자 한 사람의 변동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을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33) 2015. 12. 17. 유채꽃프라자, 이0희 사무장, 심충 면담.



이 아니라 현재의 운영주체가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시리 마을은 문화교육과의 연계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해당 문화교육의 특성상 승마 등이 계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소득증가를 위하여 일년 내내 날씨에 덜 구애 받을 수 있는 문화교육의 개발과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로 인한 판매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 가시리 마을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5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이론 및 사례연구가 포함된 문헌연구를 통하여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시리 마을은 많은 농촌지역활성화의 사례 중 하나이자 지역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몇 안 되는 사례이다.

본고에서 선행 연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인 뒷받침, 분야별 전문가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발전 여건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민의견을 수렴한 향토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보전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생업을 농사로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인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지역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문화의 특수성 개발이 지역활성화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에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농촌은 유리한 면이 있다. 가시리 마을은 그러한 마을 중 하나로 마을의 문화를 개발하고 교육으로 전달·발전을 도모하였다.

문화교육이란 정해진 공간에서 ‘문화’를 이미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려 하거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중 가



장 큰 의미를 지닌 인간이 획득한 습관의 총체이자 지역사회에서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문화’를 가르치고 배워 ‘발전·존속 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지역 문화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어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칠곡군 인문학 마을과 양평군 수미마을 역시 문화교육을 통하여 농촌의 지역활성화를 이룬 마을들이다. 칠곡군 인문학 마을은 자자체의 주도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을 주제로 하여 지역문화와 결합을 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며, 양평군 수미마을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칠곡군은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낸 마을이다. 수미마을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룬 마을이다. 두 마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문화교육이 지역활성화에 유효한 수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시리 마을은 과거부터 ‘갭마장’이 있어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 마을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오름이 많고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활용해 문화체험공간들이 만들어 졌고 그 내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회, 발전위원회, 외부 전문가 집단의 협력체계를 갖춘 운영 주체와 지역문화와의 결합, 그리고 수요자별 마을 주민 중심과 방문객 중심으로 나뉜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과 차별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 활동의 역량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문화적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배우고 싶은 문화 활동을 서로가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배우며 어린이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본인들이 참가하였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마을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마을 부분 부분마다 들어있는 주민들의 애정 어린



손길에 우선 감탄한다. 그리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가시리 마을의 특성 등을 깊이 있게 배워 문화적 배움을 얻고, 마을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교육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을을 사랑하고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과 옆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마을에 매료된 방문객을 하나로 묶어 준 것이 교육과 문화이기 때문이다.

가시리 마을은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앞서 서술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활용하였다.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 행정의 협력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 척도는 인구의 증가와 소득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생기는 노령화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농촌의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시리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들은 주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교육으로 마을의 문화를 접하면서 생겨난 인식변화는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의 감소와 마을로 인구가 유입되는 가시적 현상으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시리 마을이 알려지면서 외부인들이 이사를 오고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다. 가시리 마을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으로 연간 77,0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육들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축제들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다.

가시리 마을의 과제는 성공적인 지역활성화를 가져온 운영주체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대상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는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진행하며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의 결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증가를 위하여 일년 내내 날씨가 덜 구애 받을 수 있는 문화교육의 개발과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로 인한 판매량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시리 마을에 대한 본 연구는 가시리 마을이 이룬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회에 걸쳐 현지 방문 조사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였지만, 연구자가 지역에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연구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 『제주 가시리 문화지도』, 2010, 모모프린코.
- 강진갑, 『경기지역의 역사와 지역문화』, 2007, 북코리아.
- 김기덕,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2007, 북코리아.
- 수원시,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2014.
-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만들기 마스터플랜 연구』, 201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안양시, 『안양시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5.
-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8, 일신사.
-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외화 문화정책』, 2003, 진한도서.
-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The 재미진 마을, 가시리 문화를 입다』, 2014, 미발간 자료.
- 칠곡군 14마을 주민, 『삶의 학교 칠곡 인문학 마을』, 2014, 빛을 만지는 아이들.
-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우리나라 말 문화 향토자원 발굴에 관한 연구』, 2015, 사단법인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 John W. Creswell 저, 조흥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2013, 학지사.
- Shakley, Myra, *Visitor Management: Case Studies from World Heritage Sites*, Oxford, Butterworth-Heinemann, 1998.
- Fredric Bosc, *Tell Me about UNESCO*, UNESCO Publishing, 2002.



2. 논문

- 김기수, 「글로벌리제이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맥주 라벨의 정체성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2009.
- 김영택,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유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태순, 「자치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완호, 「우렁각시 고사를 통한 한중 양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 『중국인문과학 40』, 2008.
- 방한영,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배기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배선주,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백진주, 「지역문화와 연계한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송영호,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동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



- 사학위논문, 2006.
- 이유원,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문화에 미치는 역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효선,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 마을만들기 교육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지금종,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 『로컬리티 인문학 6』, 2011.
- 한보원,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현황과 활성화 방안」,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홍정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Hyeok Jun Goh, *From Genocide to Development - A Study on Collective Learning Process of Gasi-ri Village, Jeju,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3. 홈페이지

겨울 빙어축제 홈페이지, secretfestival.kr/reserve/view.php?no=99

김장축제 홈페이지, gimjangtour.kr/reserve/view.php?no=530

메기수염축제 홈페이지, summerfestival.kr/intro2/sub01.php

양평몽땅구이축제 홈페이지, <http://autumnfestival.kr/reserve/view.php?no=700>

제주 가시리 마을 홈페이지, www.jejugasiri.net

칠곡군청 홈페이지, www.chilgok.go.kr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public.chilgok.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ncykorea.aks.ac.kr



ABSTRACT

Rural area activation research about 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Jeju gasiri town

Lee Jiwon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rom the previous, it was our top priority to hold the fertile and spacious land and provide the rich food. Nevertheless, we are living in different era now. The people mainly residing in the rural area are seeking to move more developed citie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 population of the rural area is getting decrease, while the aging of this region is worsen. It caused to slack the production activities. It is time to search some measures to activate the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seek some suitable measures for the enabling rural areas. In this modern era, the certain characteristics are needed to keep the original trait of each rural area.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rural areas, it could be threaten the meaning of existence value. It is imperative to emphasize the need to identify and develop their original culture that the rural areas are continuously kept. It could be induced various cultural and economical results when



'Global' and 'Local' dimension is interacted each other. Furthermore, the particularities of culture have the competitiveness by itself.

Thus, we could discuss the cultural training as the measure of rural area activ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ulture holding in the certain areas. The previous generation always tries to inherit its culture to the next generation. By the continued teaching and learning, it is recorded some difficult and special things. The recorded culture is read by some people being able to do it, and arranged to teach others. The cultural training in the enabling rural areas helps the residents to uphold and develop their local culture.

Gasi-ri in Jeju Island is known as the successful village of the enabling rural areas. The residents became the operating principals and cooperated each other to re-discover the local culture pursuant to its particularities and developed it by the cultural training. It ha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 located 'Gapmajang(Horse Tracking Course)'. To activate 'Gapmajang' as the significant local resources, the village association jointly raised the horses and established the museum, cultural center and creative supporting center in the certain part of co-ranch. In addition, the facilities are operated by the cooperation system consisting of local residents, operating principals and outside expert. They cooperated to develop the cultural training program for the residents and visitors as well. The cultural training of Gasi-ri is only not to increase the profit, but is to spread the cultural value of village and is to raise the pride of villagers by themselves.

The thesis is processed by the fieldwork and literature research. The fieldwork is total 5 times, and processed by the certain steps such as visiting, experiencing and interviewing. The relevant theses and research, press release and village blogs were analyzed as the literature research.



The data being collected by the fifth field work is supplemented by Internet research such as Village representative homepage and National Statistic Office. The literature research being made at the same time of the fieldwork is divided to the theory part by the relevant prior research and the case study being achieved the goal of enabling rural areas such as Gasi-ri village and processed.

Gasi-ri village is a good case that raised the profit and increased the population by the cultural training. The activation of rural areas is the continued national wide issues. To search the successful factors of Gasi-ri in the activation of rural area will be showed some cases to apply to other villages.

Keywords: Gasi-ri Village, Local Culture, Cultural Training, Operating Principal, Training Targets, Rural Area Activation.

